

## 와카사 지역의 불상 전시품

### 대일여래좌상(11세기 중엽, 오바마시 구로코마)

이 대일여래상은 예로부터 구로코마무라(黒駒村)에서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이 불상은 와카사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대일여래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불상은 신불습합(일본 고유의 신앙과 불교가 융합된 신앙에 대한 것) 시대에 구로코마의 신사에서 수행하던 승려들에게 숭배되었다는 기록과 지역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져 인근 절 불당에 안치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불상은 원래 금박으로 덮여 있었으나 금박이 벗겨진 후 채색된 것으로 보입니다. 왕관과 광배는 나중에 추가되었습니다. 대일여래의 손은 5가지 요소(땅, 물, 불, 바람, 하늘)와 정신적 의식의 통일을 상징하는 인상(부처님의 손모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 부동명왕입상 복제(11세기 후기, 엔쇼지 절)

부동(不動)의 지혜를 가진 왕인 부동명왕을 표현한 이 부동명왕상의 원품은 오바마시 중심부의 엔쇼지 절에 모셔져 있으며,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동명왕은 왼발을 앞으로 내밀어 대좌에서 한 발짝 내딛는 듯한 역동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명왕상은 부동십구관(열아홉의 부동명왕의 가시화)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 초기 형태입니다. 풍성한 곱슬머리와 왼쪽 어깨에 걸친 땅은 머리, 입술을 깨문 이, 한쪽 눈은 부릅뜨고 다른 쪽 눈을 가늘게 뜬 표정, 검과 올가미를 든 모습이 특징입니다. 이 복제품에는 검이 없지만 오른손은 칼자루를 잡는 위치에 있습니다.

### 부동명왕좌상 복제(11세기 후기, 조젠지 절)

이 부동명왕상의 원품은 과거 조젠지 절근처 산에 있는 부동당에 안치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경내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원품은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좌상은 해상 안전에 대한 기도를 들어주는 '파절부동(波切不動)'으로 오랫동안 숭배되어 왔습니다. 가느다란 몸과 얇게 새겨진 옷주름은 헤이안 시대 후기(794년~1185년) 교토에서 만들어진 작품의 특징입니다. 이 양식은 불교 승려 엔친(円珍, 814년~891년)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져온 불상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관음보살좌상 복제(10세기 초, 조케이인)

이 좌상은 자비의 보살인 관음이 연꽃을 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품은 조케이인(사원)이 관리하는 관음당에 안치되어 있으며,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좌상은 원래 구스야가다케 기슭에 있는 닛코지 절의 본존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731년에 나라(奈良)의 고승이었던 교기(行基, 668년~749년)가 조각했다고 전해집니다. 닛코지 절은 16세기 초에 소실되었지만, 관음상은 다른 곳으로 옮긴 덕분에 손상을 면했습니다.

### 마두관음좌상 복제(11세기 후기, 마고지 절)

이 마두(말머리)관음상 원품은 마고지 절 본당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마고지는 아스카 시대(592년~710년) 황족인 쇼토쿠 태자(聖德太子, 574년~622년)가 창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관음상은 8개의 팔과 3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말머리를 관으로 쓰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비의 보살 형태로는 드물게 험상궂은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자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강력한 힘을 상징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한편, 밀교에서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세속적인 생각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 아미타여래좌상(10세기, 오바마시 호토케다니)

이 작은 아미타여래(무한한 빛과 생명의 부처) 좌상은 와카사 지역에서 조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불상의 대부분은 편백나무 일목조(한 그루의 통나무로 불상을 조각하는 방법) 기법으로 만들어져 있으나, 팔꿈치에서 아래쪽 팔과 무릎에서 아래쪽 다리는 다른 목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불상은 호토케다니무라에서 오랫동안 숭배되어 왔으며, 지역사회에서 신앙의 중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 지장보살반가상(19세기, 가미네고리무라)

이 지장보살은 가미네고리무라 마을 입구에 있는 지장당에 수호신으로 모셔져 있었습니다. 이 불상은 승려 옷을 입고 반가부좌하고 있으며, 오른손에 석장(錫杖)이라는 지팡이를 든 지장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반가부좌는 오른쪽 다리를 구부려 왼쪽 넓적다리에 얹어 꼬고 앉는 것을 말합니다. 가미네고리는 와카사와 교토를 연결하는 교역로망인 사바카이도(고등어길)에 면해 있어 교역과 문화교류의 거점이었습니다. 이 길을 통해 일본해에서 잡힌 물고기가 교토로 운반되었는데, 특히 중세 이후에 이 길로 고등어가 많이 옮겨졌기 때문에 고등어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지나던 여행자들은 이 지장보살상에 여행 안전을 기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